ISSUE BRIEFING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

연구책임 조원지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2022. 10. 25 vol.271

jthink 전북연구원

1. '관계인구'에 주목하자!

○ 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함

- 전라북도는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전국 113곳으로 228개 시군구의 49.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북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음[1)]

○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구감소지역 대책은 인구의 자연증가율 증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참여 의향이 이전보다 증가하며 농촌은 새로운 주거·여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성주인 외, 2022)

○ 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지역과의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도시인구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 인구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함(성주인 외, 2022)

○ 농촌과 관계를 맺는 도시민을 의미하는 '관계인구' 개념은 2016년 타카하시 히로유키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에서 등장하였으며, 관계인구는 도시민이 지역이나 지역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로 정의되고 있음(이소영, 김도형, 2021)

○ 심각한 고령화·과소화와 청년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관계인구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귀농귀촌, 관광, 일자리, 체험 등으로 도시민의 전라북도 농촌 유입이 농촌지역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관계인구의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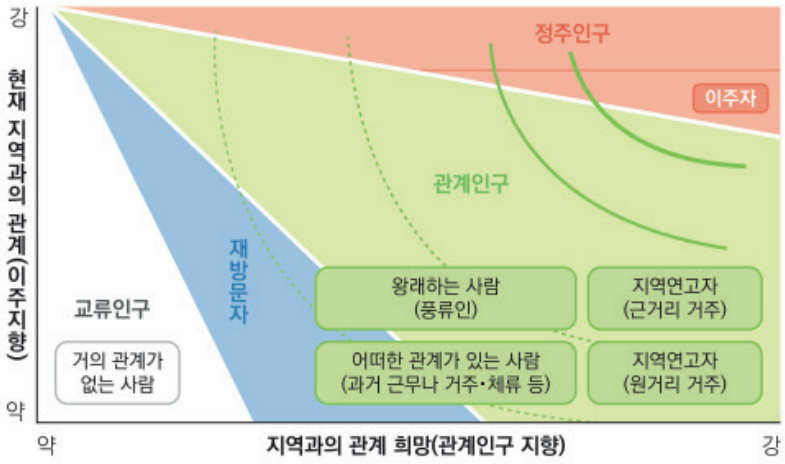
○ 201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관계인구' 개념은 사시데 카즈마사의 저서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빈번히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음(이소영, 김도형, 2021)

1)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봄호, 8-21.

○ 2019년 作野廣和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관점과 생활방식 측면에서 관계인구를 '지역자원 지향형', '비거주지역 유지형', '지역공헌 지향형', '느린 삶 지향형'으로 구분함(이소영, 김도형, 2021)

- 지역지원 지향형 :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지역으로 이주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
- 비거주지역 유지형 : 농산어촌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생활 유지를 중시하는 이들로 출향민 세대가 대표적임
- 지역공헌 지향형 : 도시의 관점에서 농산어촌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응원은 하지만, 이주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유형임
- 느린 삶 지향형 : 도시의 한계와 농산어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도시에서 멀어지지 않는 유형임

○ 관계인구는 2018년 일본 정부의 정책에 등장하면서 일본 총무성은 '정주인구가 아닌 이주 지향과 관광인구 이상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정의하였으며, '근거리 지역연고자', '원거리 지역연고자', '왕래하는 사람',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함(이소영, 김도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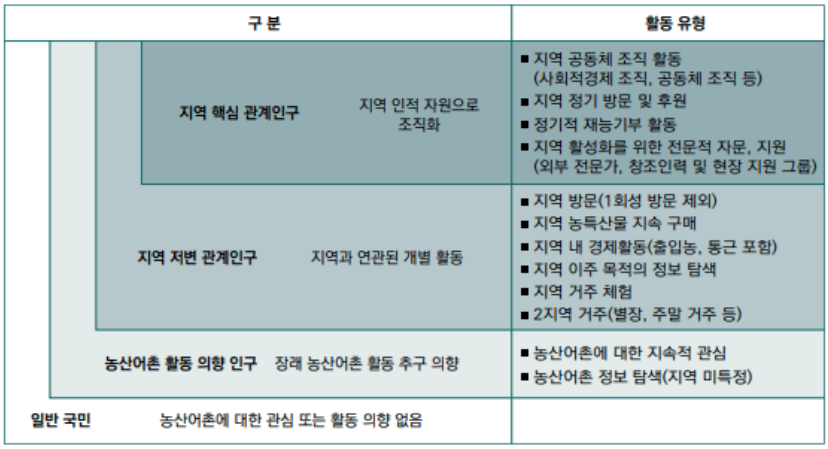
〈그림 1〉 지역과의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자료 : 總務省(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68242.pdf, 2021년 3월 18일 검색)

○ 성주인 외(2021) 연구는 관계인구를 '도시에 거주하면서 물리적 이동 또는 이를 대체할 수단에 의한 주기적 또는 반복적 방문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경험 획득 또는 공유하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제시된 정의를 근거로 관계인구 유형을 '농산어촌 이주를 실행하는 귀농귀촌 이외에도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집단', '실제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집단',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음(성주인 외, 2021)

〈그림 2〉 농산어촌 관계인구 개념과 유형



3. 전라북도 및 국내외 관계인구정책

1) 전라북도 관계인구 활용방안

○ 전라북도는 2021년 관계인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기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진방향은 1) 농촌에서 도시·도시민까지 확대하여 '도농융합 상생문명'에 대응, 2) 단순방문에서 관계형성, 관심방문·지역인재로 관계확대, 3)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한 지역홍보, 관심도 제고, 맞춤형 정보제공임

○ (도농교류) 새로운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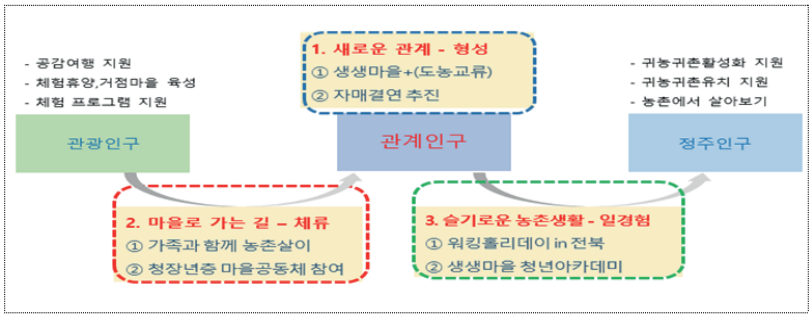
- (도농교류)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추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 소셜다이닝, 산촌마을캠프 등)
- (자매결연) 농촌마을·도시민(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생태적 공존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농촌체험) 도시민 마을 가는 길

- (가족과 함께 농촌살이) 도시민에게 숙박공간과 주말농장을 제공하는 가족 단위의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이 농촌 이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 (마을공동체 참여) 도시민이 농촌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인재로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사업

○ (일 경험) 슬기로운 농촌생활

-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전문경험과 지식을 가진 도시 베이비부머가 농촌지역 소재 기관, 영농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기관 운영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등에 참여하면서 베이비부머가 지역의 핵심 관계인구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 (생생마을 청년아카데미) 농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지역알리기, 농촌경험,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 핵심 관계인구로 육성하는 사업



〈그림 3〉 전라북도 관계인구를 활용한 농촌 활력화 방안

2) 일본 관계인구정책

○ 2018년 총무성은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함(한주성, 2019)

○ 2019년부터 총무성은 관계인구를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주변확대형', '주변확대형(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지원 모델 사업을 추진함(이소형, 김도형, 2021)

구분	내용	
관계심화형	연고형	•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인구를 모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 안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
	고향납세형	•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여 고향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에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관계창출형	•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나 계기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과제 혹은 요구와 관계인구가 될 사람의 지식·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간지원기능을 조성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주변확대형	• 도시부에 소재하는 개인·기업·단체(NPO·대학교 연구실 등)와 연계하며 도시부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주변확대형 (외국인)	•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하면서, 방일외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해서 지역(지역주민, 지역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자료 : 總務省(2020), 「関係人口創出·拡大事業」

〈그림4〉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2019)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에서 '관계인구' 정책이 도입되었고,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의 인구흐름을 만듦'을 하나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일본 총무성은 본격적으로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소영, 김도형, 2021)

○ 관계인구정책 패키지로, 1) 고향 워킹 홀리데이, 시험 위성사무실 사업, 지역부흥협력대 농촌 지역조성사업체(RMO) 구축 등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2)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등, 3) 고등학생 지역유학을 위한 고등학교 매력화 지원사업 등, 4) 산업인재 환류 촉진으로 지방창생 인턴십, 도쿄권 대학의 지방 위성 캠퍼스 등, 5) 지방거주를 위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국 두 지역 거주 등 촉진협의회 포털 등, 6) 고향납세 활용 지자체 지원정책, 세액공제비율 인상 및 절차 간소화, 모범기업·지자체 표창 및 모델 등이 있음(성주인 외, 2021)

○ 유바리 Likers(성주인 외, 2021)

- 대표적인 광업도시 중 하나였던 홋카이도 유바라시의 인구는 12만여 명에서 폐광 이후 2021년 8천 명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출향민과 그 가족, 특산품 구매자, 관광객, 고향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유바리 Likers' 모집
- '유바리 Liker' 등록자에게 등록 감사장과 전용 명함 제공하고, 이들에게 유바라시 행사, 마을 걷기 프로그램, 이벤트, 워크샵을 홍보하며, 연대별, 지역별로 사진과 자료를 분류하여 온라인 아카이빙 '모두 함께 만드는 유바리의 기억 박물관' 홈페이지운영

〈그림 5〉 박물관 홈페이지

3) 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그림 6〉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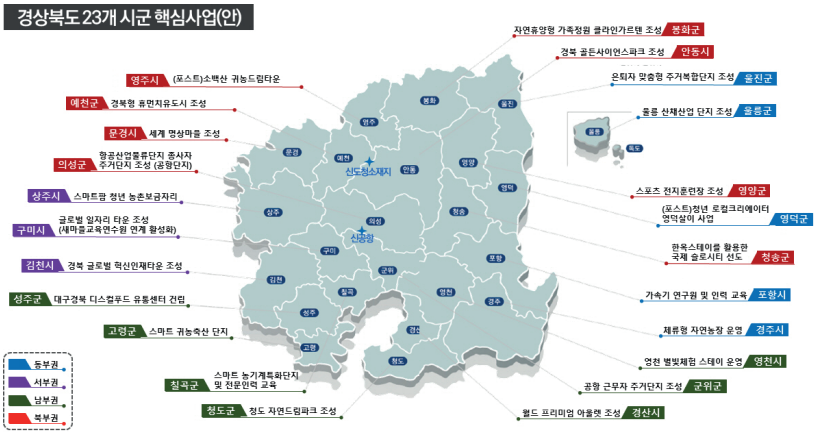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어촌지역의 재정부족 완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관계인구 유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4) 경상북도 듀얼라이프[2)]

○ '경북형 듀얼라이프'는 '본인 또는 가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실천을 위해 도시와 지방에 2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중장기, 정기,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며 거주하는 생활양식'으로 개념화함

〈그림 7〉 경상북도 듀얼 라이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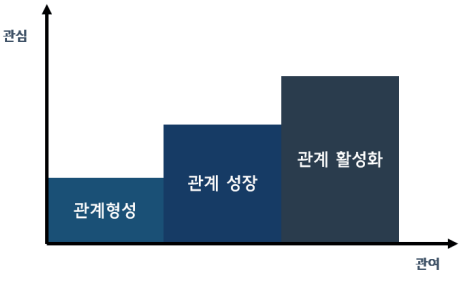
- 관계인구(여가체험형, 해외유입형) : 경북도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 다양한 여가체험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계인구 확보
- 체류인구(휴양거주형, 교육연수형) : 지역 내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정기적 국내외 방문객 유치, 국내외 공공·민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생 모집
- 정주인구(생산일자리형) :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민간기관의 새로운 근무형태에 따른 인구유입
- 영천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등



〈그림 8〉 경상북도 시군별 핵심사업(안)

4. 전라북도 관계인구정책 과제

○ 전라북도는 2021년 관계인구를 활용한 농촌 활력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도시민의 지역 관심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참여 정도에 따른 단계별 방안이 다소 미흡함



〈그림 9〉 전라북도 관계인구 유형

2) 경상북도(2021). 경북도, 인구감소 생존전략 '듀얼 라이프' 꺼냈다.(보도자료, 2021.11.30.)

○ 전라북도 관계인구정책을 '전라북도 농촌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관계 형성)', '전라북도 농촌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인구(관계 성장)',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관계가 발전한 인구(관계 활성화)'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형성 : 도농교류, 체험, 관광 등을 통해 전북 농촌을 방문하여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관계인구가 발생하는 단계
- 관계 성장 : 단순 방문 이상의 활동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하며, 지역과 관련된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관계 활성화 :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 공동체조직 활동 참여 등으로 지역 인적자원 또는 잠재적 정주인구로 성장하는 단계

○ (관계 형성) 전북 농촌과의 첫만남 또는 단절됐던 관계 회복

- (산업관광) 농생명 관련 기업 근로자, 농업 관련 전공 고등학생·대학생, 관심 있는 도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북의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 (체험) 도내 도시와 도외에 거주하는 도시민 중 전북 농촌에 관심이 있는 소외계층 가족, 어린이·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 교류, 관광 등 프로그램
- (도농교류) 도시민 및 도시 소재 단체·기업·대학과 농촌 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소통과 교류로 도시민-농촌 간 정기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 (농특산물 연계 교류) 전북 농촌 농산물 및 특산물을 매개로 농촌 생산자와 도시민·출향민·연고자 등과의 만남이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 꾸러미 쿠폰, 마을 농작물 재배지 분양 등)

○ (관계 성장) 일회성이 아닌 농촌 방문·체험, 체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농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

- (전북형 농촌 살아보기) 일정 기간 체류하며 전북 농촌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강점을 경험(도시 청년 여성 모임·단체, 국내 거주 외국인, 만성질환자 등)

* 한 예로,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만성질환자들이 전북 청정농촌에서의 건강식단과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북형 농촌 살아보기'를 운영함

- (워케이션 in 전북)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농촌마을에서 일과 휴식·놀이·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마련된 '워케이션 스테이션'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이 체류하며, 일과 휴식을 농촌사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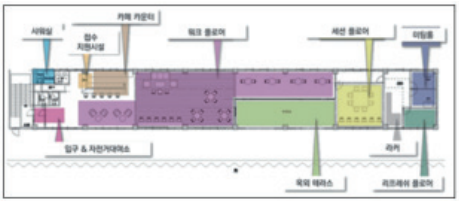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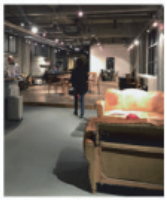
* 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인근 지역 음식점지도, 문화행사·활동지도, 쇼핑지도, 생활편의시설지도를 제작·배포하고, 도시민이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레포츠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을 농촌 마을들과 함께 운영함

*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1인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단위의 도시민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in 전북'을 운영함

* 워케이션 회원제 : 6개월 또는 1년간 전라북도 13개 시군의 워케이션 가능한 농촌 마을에서의 숙박과 농산물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음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오노미치셰어[3)]

- 코워킹 스페이스 '오노미치셰어'와 복합문화공간·호텔 '오노미치' 조성
- 지역민, 관광객, 외부 기업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
- 접수대, 카페, 야외 테라스, 워크 플로어, 세션 플로어, 회의실, 로커, 샤워실, 자전거 대여공간 등 조성
- 관광자원으로 시마나미 사이클링, 세토우치 크루즈, 낚시, 산책, 해수욕장, 축제 등

- (고향사랑 기부자 일촌맺기) 전북 13개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급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살아보기 체험, 농촌관광 바우처 등을 통해 전북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와 농촌사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

* 고향사랑 기부자는 해당 지역의 농촌 마을들과 일촌맺기를 통해 갓 수확된 농촌 마을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에서 살아보기와 농촌관광 시 숙박비와 관광시설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농촌 마을과 일촌을 맺은 청장년층이 마을과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에 체류하면서 주민을 위한 재능기부나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비를 제공함

○ (관계 활성화) 농촌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자신의 재능기부나 지역조직 활동 참여로 지역과의 공고한 관계 형성

-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전문경험과 지식을 가진 도시 거주 50+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회 제공

* 협약기관 : 서울시 50+재단

* 활동분야 : 기관 운영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경영관리, 인사노무 등

* 근무처 : 지역 소재한 기관(중간지원조직 등), 협회, 영농조합, 사회적경제조직

- (생생마을 청년아카데미) 도시 청년층이 농촌지역 이해, 경험,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 이해와 농촌에서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아카데미 참여로 농촌 고향을 만들어주는 기회 제공
- (전북 생생농촌대학)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에 도시민이 체류하며 교육과 지역탐방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수료 후 지역에서 재능기부, 인턴십, 지역 일자리 등의 참여 기회 제공(분야 :생태농업, 흙집만들기, 목조건축, 분재, 목공예 등)
- (전북 이노베이션 스페이스) 도시 청년, 예술가, 중장년층 등에게 새로운 일터와 삶터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이들의 문화복지·생활서비스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 청년, 예술가, 중장년층 등은 저렴한 연회비로 전북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의 코워킹스페이스, 작업공간, 도서관, 카페 등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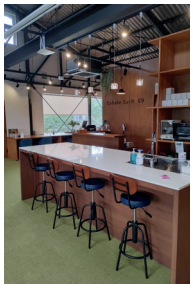
* 지자체는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농촌 커뮤니티에서 사업화되고, 지역주민은 이들의 문화복지, 생활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송미령 외(2021).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공간으로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를 개방하여 도시에서 이주한 활동가와 (예비)창업가와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중에서 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이벤트를 관리하는 매니저 고용

일본 교토 The E9

- 낙후된 지역에 지역예술가를 위한 연습장과 공연장, (예비)창업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카페 등으로 구성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조성
- The E9의 회원인 지역예술가와 (예비)창업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은 지역예술가와 (예비)창업자의 프로그램에 참여



〈참고문헌〉

경상북도. (2021). 경북도, 인구감소 생존전략 '듀얼 라이프' 꺼냈다.(보도자료, 2021.11.30.)
성주인, 김광선, 심재헌, 한이철, 서형주, 정학성. (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김광선, 심재헌, 김용욱, 나현수. (2021).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봄호, 8-21.
이소영, 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Summary

The policies of relational population for revitalizing Jeollabuk-do rural areas

Won-jee Cho, Research Fellow

○ As the rural area's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89 'Population Declining Regions' in October 2021. There are 10 regions in Jeollabuk-d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ursued population policies,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immediately increasing population through enhancing life services and the quality of community life.

○ In 2021, Jeollabuk-do came up with a plan on how to revitalizing rural areas by 'relational population': a population is related with regions in a variety of ways. The plan included 1) coexistence civilization, rural-urban linkage, 2) becoming the urban dweller's area of interest, their participation into enhancing the quality of rural areas, 3) providing information tailored to the interests of city residents.

○ Because the plan focuses on buil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urban population and rural regions, it is not sufficient to deeply develop the city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rural communities. It proposed the second plan which is divided into three steps: 'building the relation,' 'developing the relation,' and 'activating the relation.'

○ 'Building the relation' is city people's the first relation with rural regions through rural tours, rural experience, rural-urban exchange[1], and so on.

○ The next, 'developing the relation' is city people's involvement in the relation with rural areas, including living in Jeonbuk, worcation in Jeonbuk,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hometown-loving donators, and so on. For example, 'worcation in Jeonbuk' would offer city residents a complex space for working, taking a rest, and sightseeing.

○ 'Activating the relation' is city people's deeply socioeconomic participation into rural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working holiday in Jeonbuk, saeng-saeng village[2] academy, Jeonbuk innovation space and so on. To enhance city people's a sense of community, rural communities provide them with a chance of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ally activate the communities by their coope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city people and community members.

Key Words relational population, population declining regions, building the relation, developing the relation, activating the relation

1) permanent exchange activ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through saeng-saeng village projects, social farming, sisterhood relations projects

2) The vibrant village where home town-leaving people, tourists, urban-to-rural migrants visit for rural communities experience, sightseeing,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economic participation, and so on

iSSUE BRIEFING 2022. 10. 25 vol.271

The policies of relational population for revitalizing Jeollabuk-do rural areas

Won-jee Cho, Research Fellow

jthink 전북연구원

발행인_권혁남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2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